



젠더이슈 Gender Issue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이슈 분석

2021년 제16호

코로나19 확산과 여성노동 실태: 재가 돌봄 노동 현장을 중심으로

국미애(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본부)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비접촉, ‘사회적 거리두기’가 권장되고 있다.”

“그렇다면 대면이 불가피한 돌봄 노동 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특히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노동이 이루어지는 재가 돌봄은?”

“일상의 유지와 생존을 위해 멈출 수 없는 돌봄 노동,

감염병 확산 시기에도 지속 가능하려면?”

전문보기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all rights reserved.

본 메일은 발신전용이며,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에서 수신동의 내역을 거부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06939)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대방동), 대표전화 02-810-5000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시민서비스현장 바로가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 hot line 02-810-5401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인권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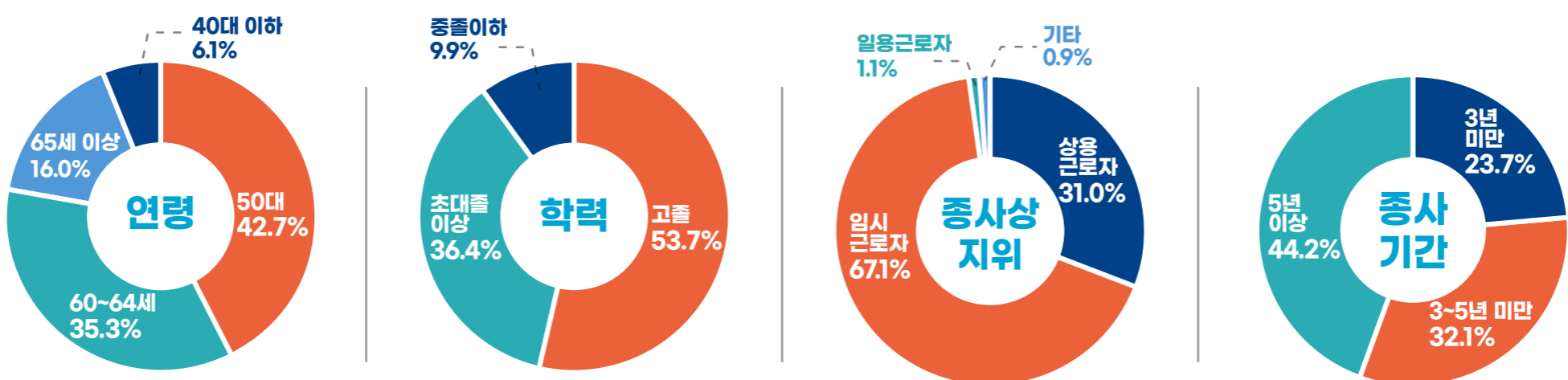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과 여성노동 실태: 재가 돌봄 노동 현장을 중심으로*

국미애(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 확산은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비접촉 활동을 촉진시켰다. 대면 접촉에 따른 감염 위험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의 방역 규범으로 자리 잡으면서 원격수업이나 재택근무, 온라인회의가 활성화되는 등 이전과는 다른 생활 방식과 노동 양식이 대두되었다. 이처럼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동과 대면을 최소화하는 국면에서도 일상의 유지와 생존을 위해 대면이 필수적인 영역들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돌봄 노동을 들 수 있다. 특히 서비스 이용자의 집을 방문하여 이루어지는 돌봄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의 집은 개인의 사적 공간이면서 노동자에게는 공적 공간인 일터라는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감염병 확산 시기 재가 돌봄 현장의 노동 실태를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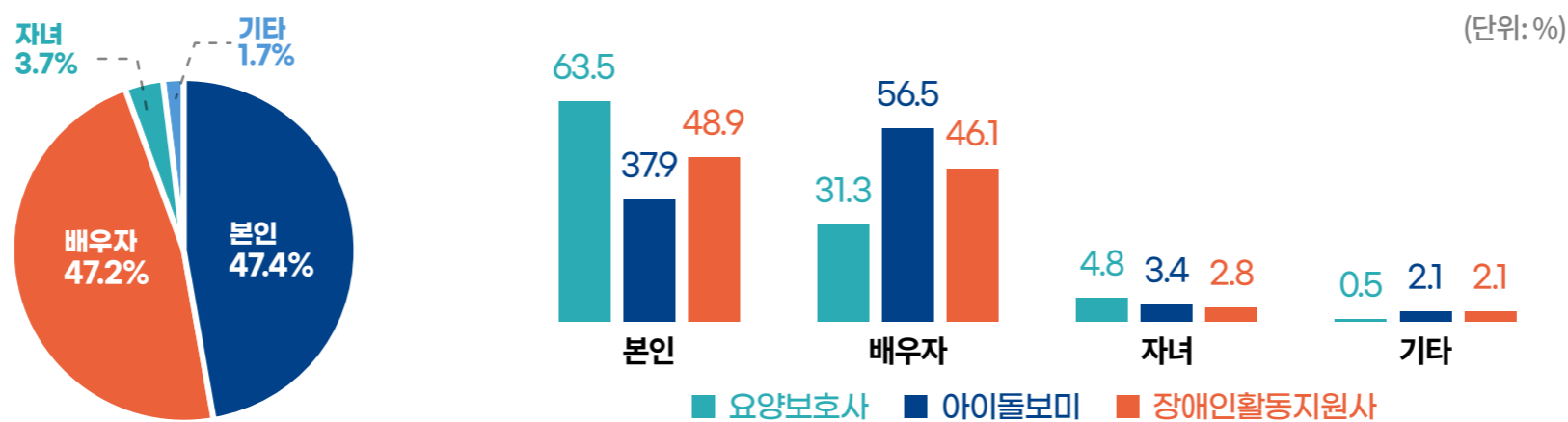
✓ 서울시 재가 돌봄 여성노동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 / 총 726명
· 코로나19 전후 비교를 위해 2019년에도 동일 직종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여성으로 한정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조사
- 조사기간** | 2021년 10월



· 종사상지위 ‘기타’에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잘 모름’ 등이 포함됨

가구소득 주 기여자



실태조사 추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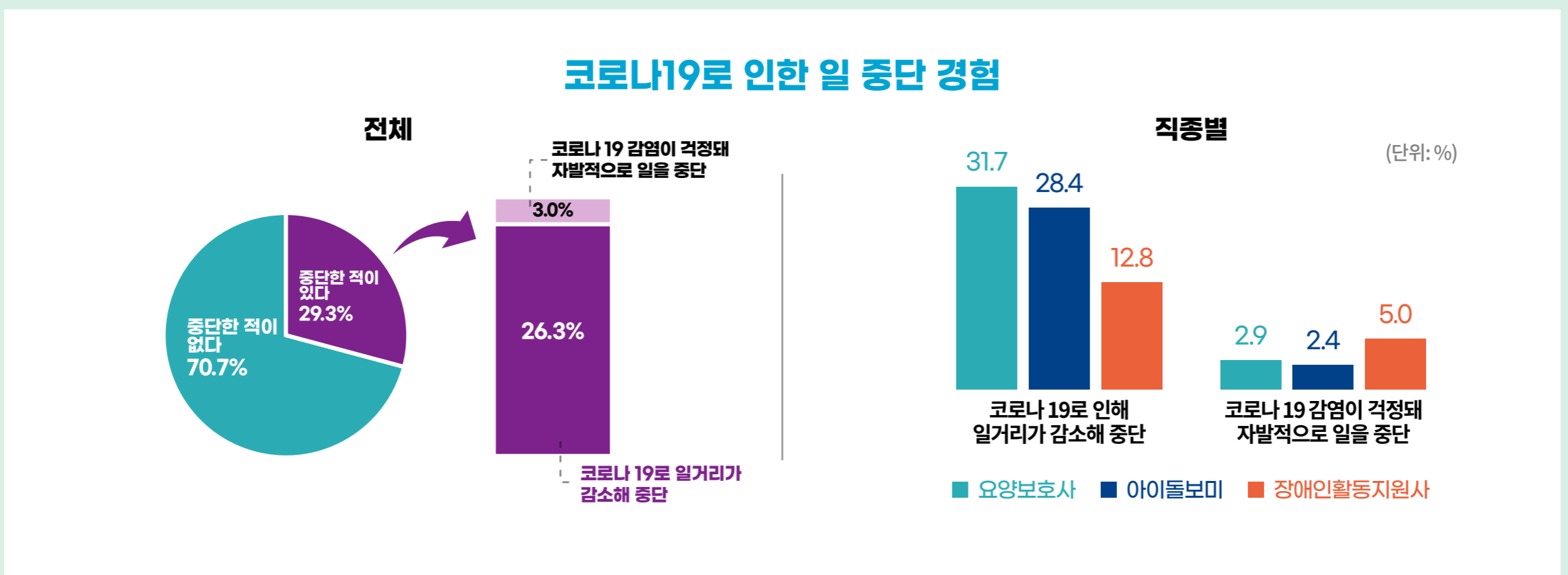


* 이 글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수행 중인 “코로나19와 여성노동 정책과제 1 : 대면대인서비스 현장 분석”(국미애·김소연, 2021) 연구의 일부임.

코로나19 전후의 일과 소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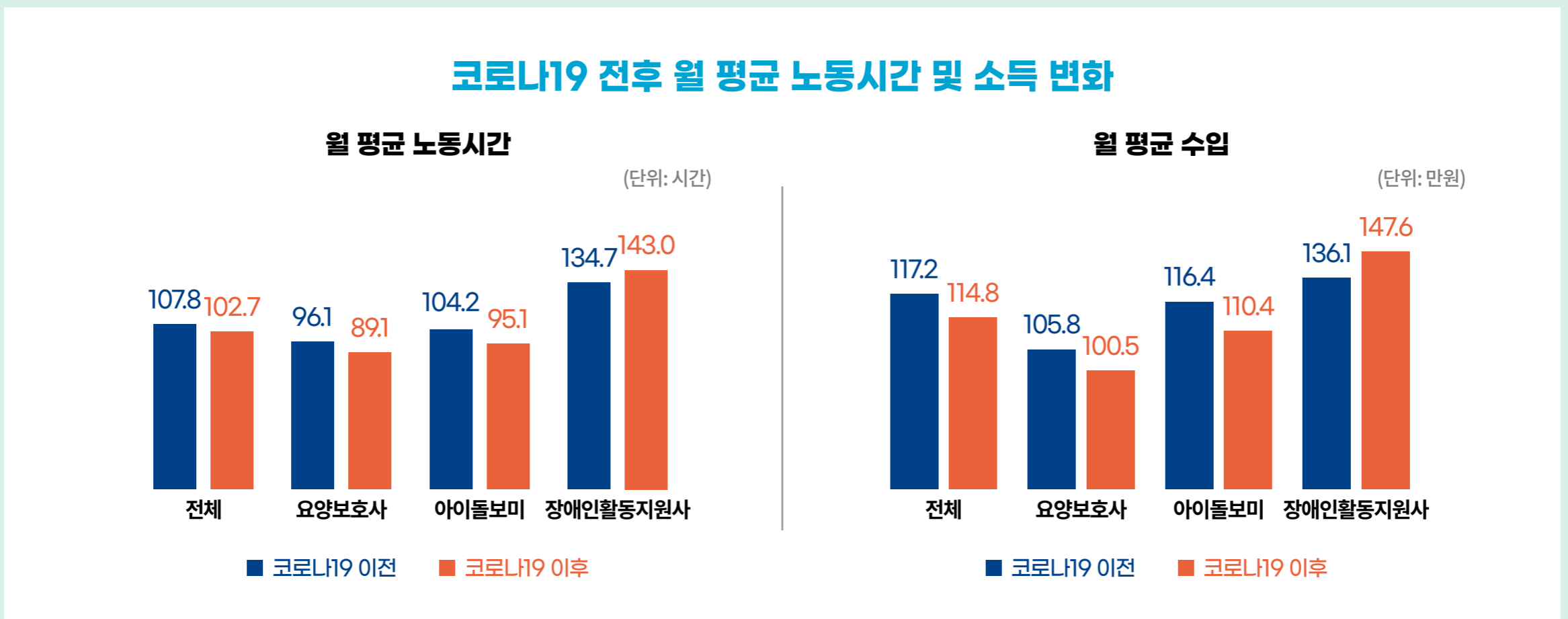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일을 중단한 경험 29.3%로 나타나

- 감염병 확산에 의해 일거리가 감소해 중단한 적이 있는 경우 26.3%
- 감염이 걱정돼 자발적으로 일을 중단한 적이 있는 경우 3.0%
- 요양보호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일거리가 감소해 중단한 경험 31.7%로 가장 많아



요양보호사와 아이돌보미, 코로나19로 노동시간 및 소득 일부 감소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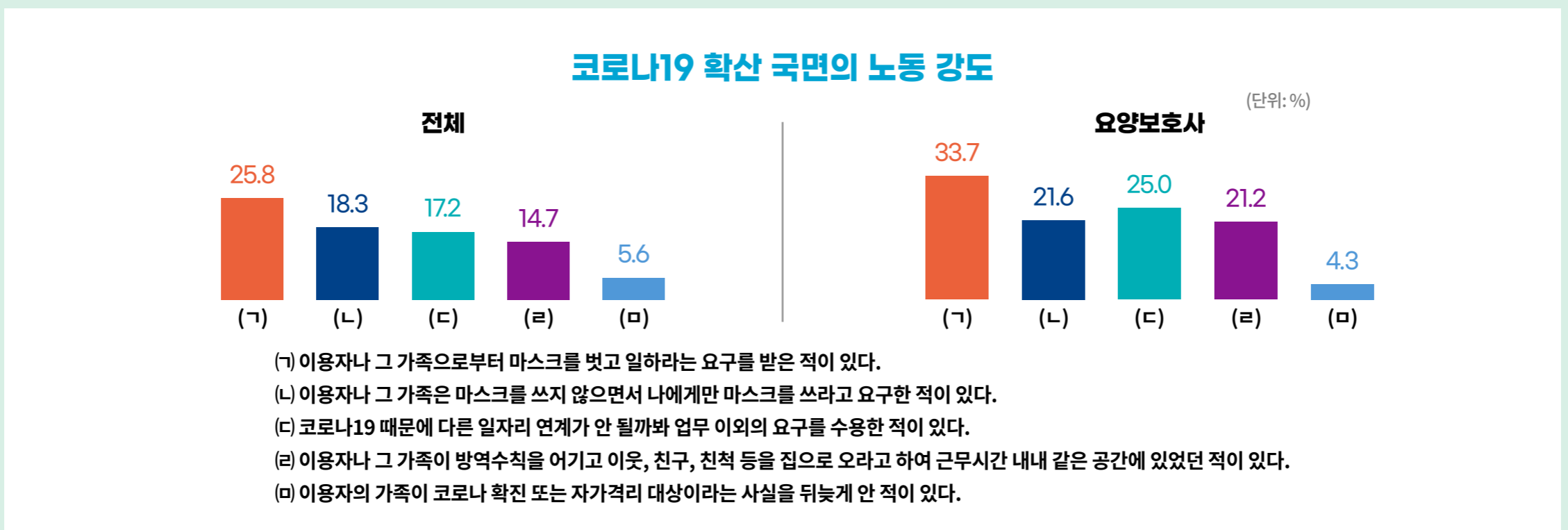
- 2019년 6~8월 대비 2021년 6~8월 평균 노동시간 및 평균 수입 파악
 - 요양보호사: 노동시간(월) 96.1시간 → 89.1시간, 수입(월) 105.8만원 → 100.5만원
 - 아이돌보미: 노동시간(월) 104.2시간 → 95.1시간, 수입(월) 116.4만원 → 110.4만원
-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노동시간과 소득 모두 증가: 이동 제약 및 대체 돌봄 어려움 확인



코로나19 확산 국면의 노동 강도 및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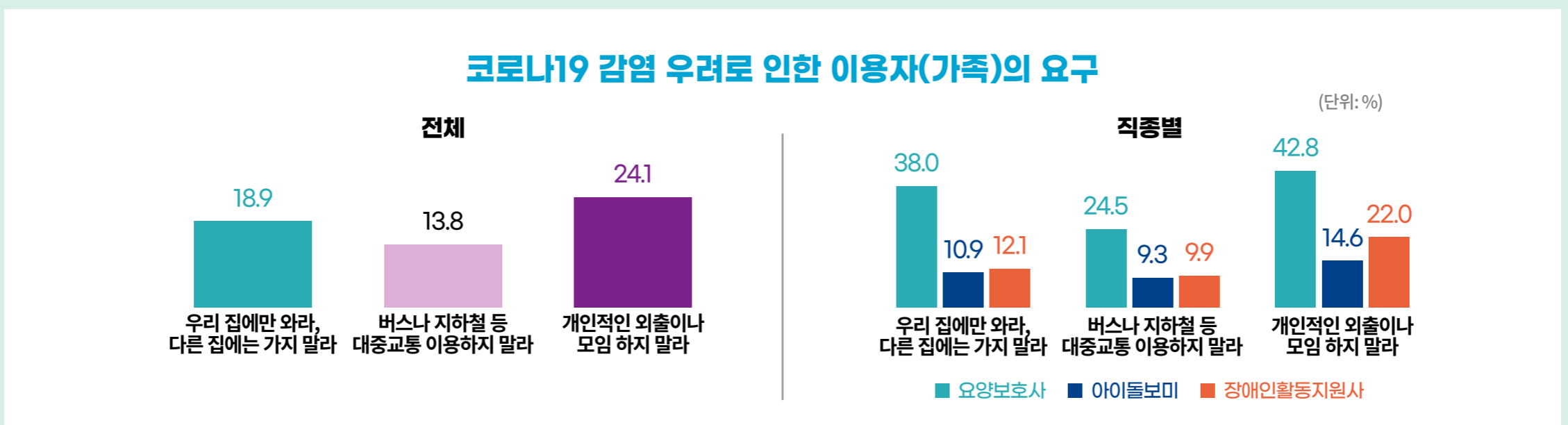
감염 예방을 위해 착용하는 마스크 관련 요구 가장 많아

- 마스크 벗고 일하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 25.8%
 - 요양보호사의 경우 33.7%로 전체 응답자 평균 상회 / ‘마스크로 인한 의사소통 어려움’
- 이용자나 그 가족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서 돌봄 노동자에게만 쓰라고 요구한 경우 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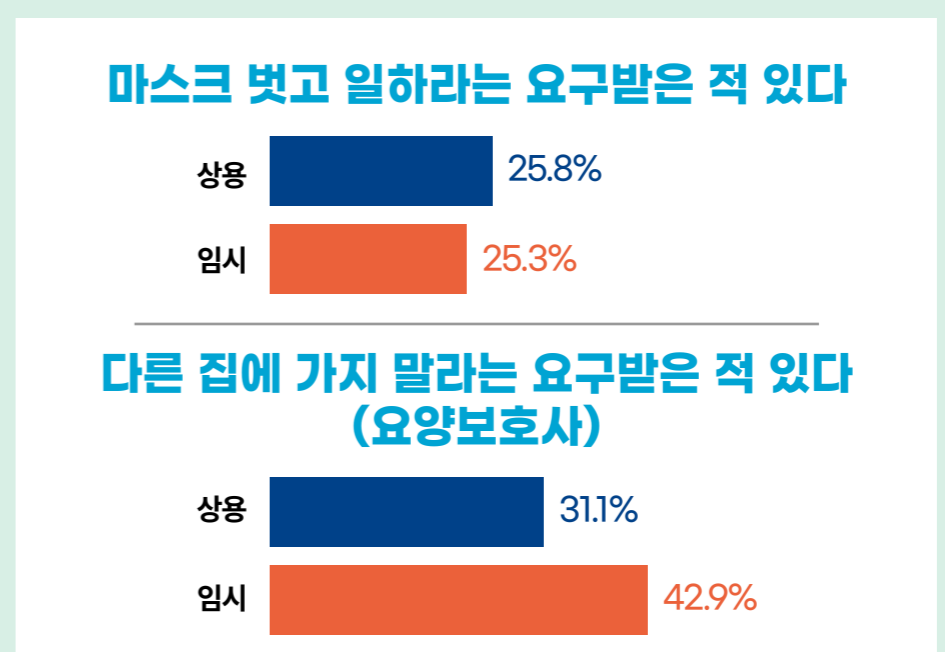
감염 우려로 인한 일상생활 통제와 일거리 중단 위험, 직종별 편차 크게 나타나

- ‘개인적인 외출이나 모임 등 하지 말라’는 요구 받은 경우 24.1%
 - 요양보호사 42.8%, 장애인활동지원사 22.0%, 아이돌보미 14.6%
- ‘우리 집에만 와라, 다른 집에는 가지 말라’는 요구 받은 경우 18.9%
 - 요양보호사 38.0%, 장애인활동지원사 12.1%, 아이돌보미 10.9%



재가 돌봄 직종의 취약성, 감염병 상황에서 상용직과 임시직 유사하게 겪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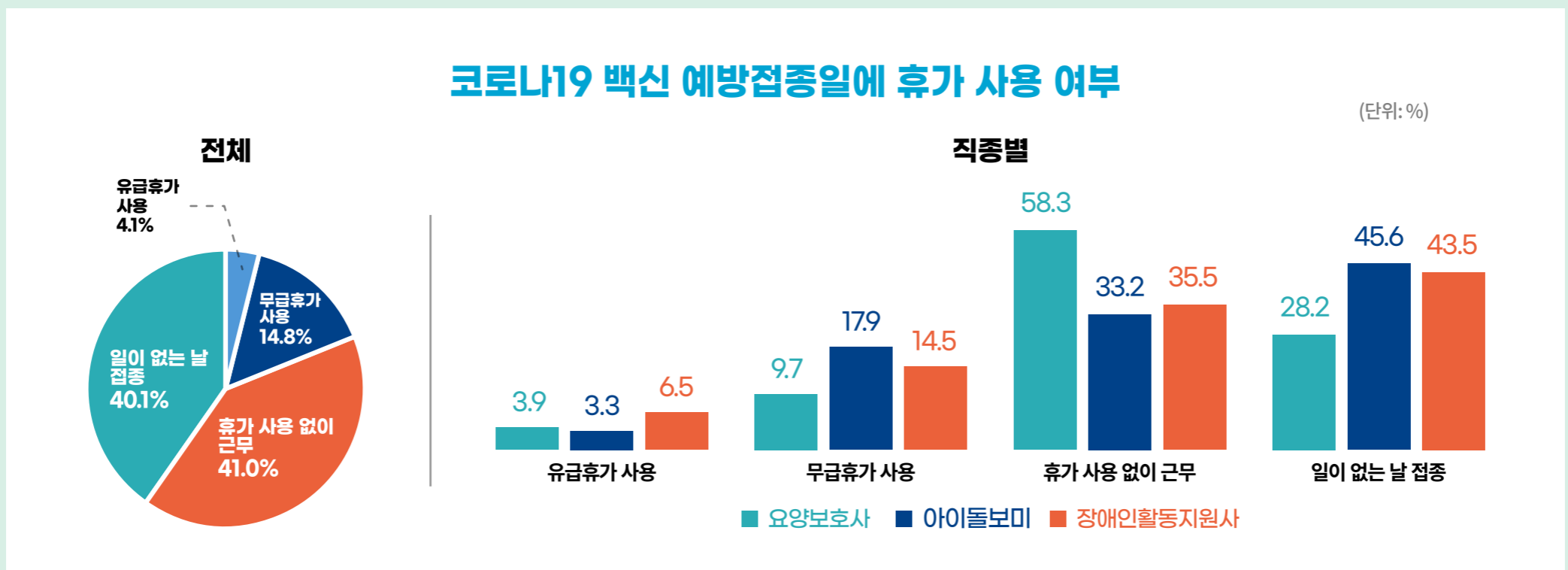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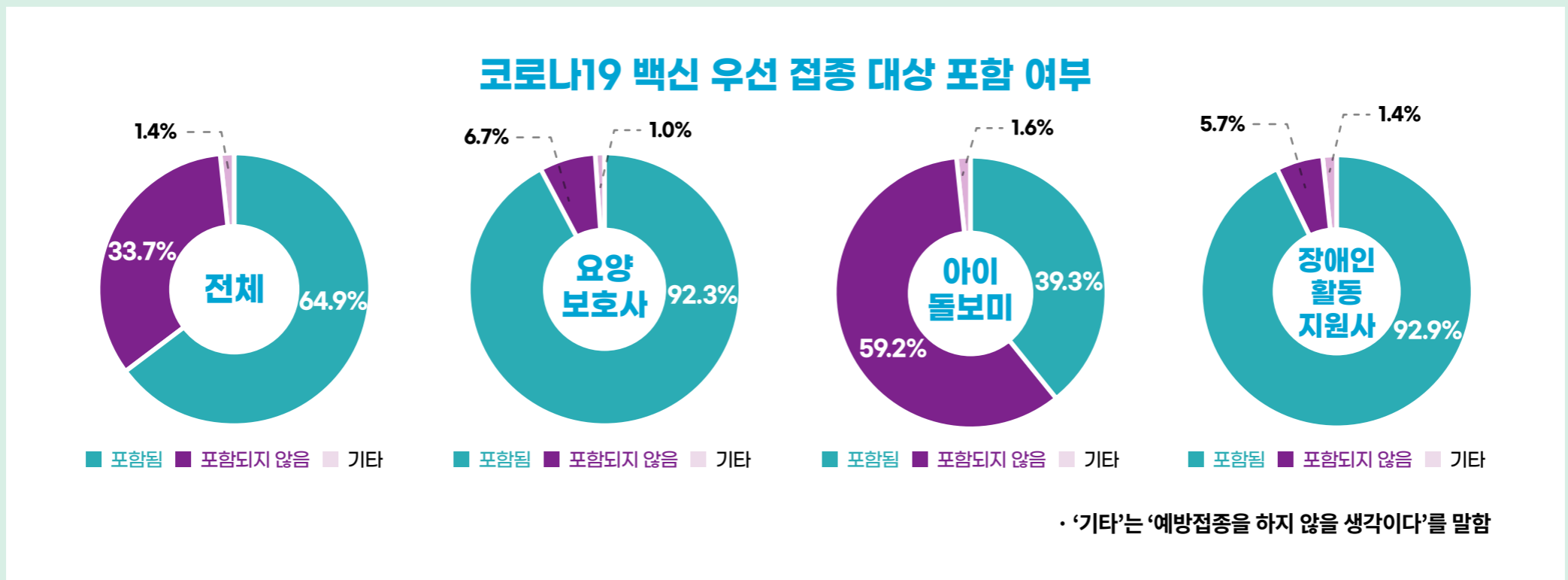
- 코로나19 국면의 노동 강도 증가 및 감염 우려로 인한 일상 통제, 상용직과 임시직에서 유사하게 나타나
- 감염병 확산 등 위기 상황에서 일하는 과정의 안전 보장 취약해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보호 물품 지원받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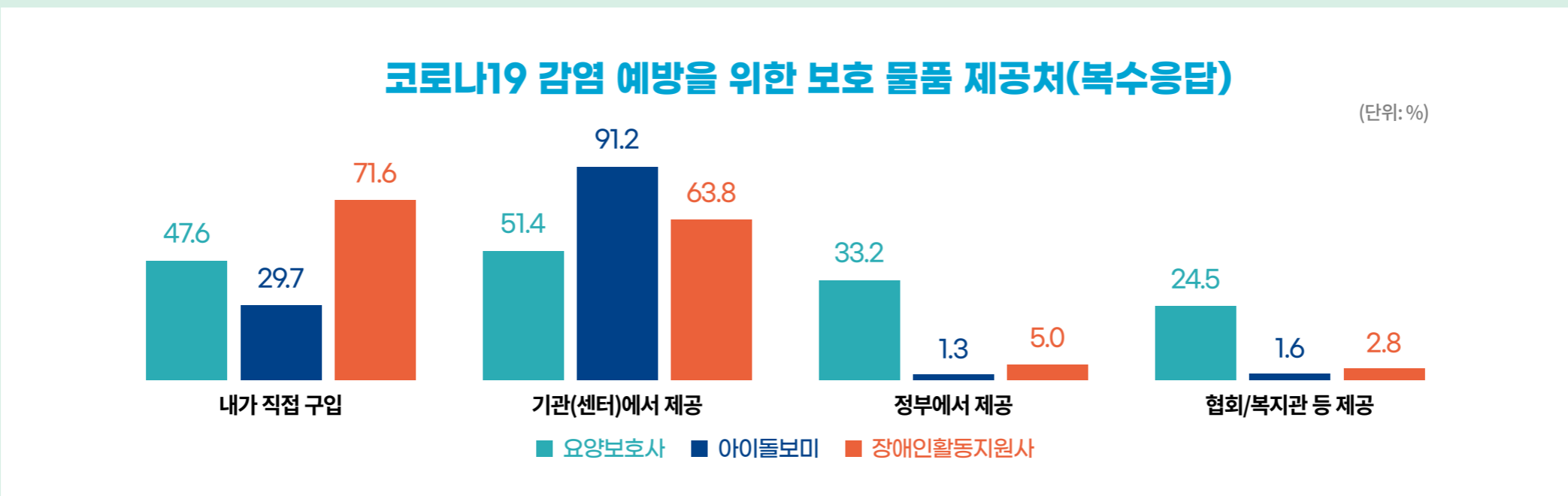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64.9%가 포함돼

- 요양보호사의 92.3%, 장애인활동지원사의 92.9%는 우선 접종 대상으로 예방접종 마쳐
- 아이돌보미의 경우 우선 접종 대상으로 예방접종했다는 응답이 39.3%에 그쳐
- 백신 예방접종일에 ‘휴가 사용하지 않고 일을 했다’고 응답한 경우 41.0%에 달해



장애인활동지원사, 감염 예방 보호 물품 직접 구입하는 경우 71.6%에 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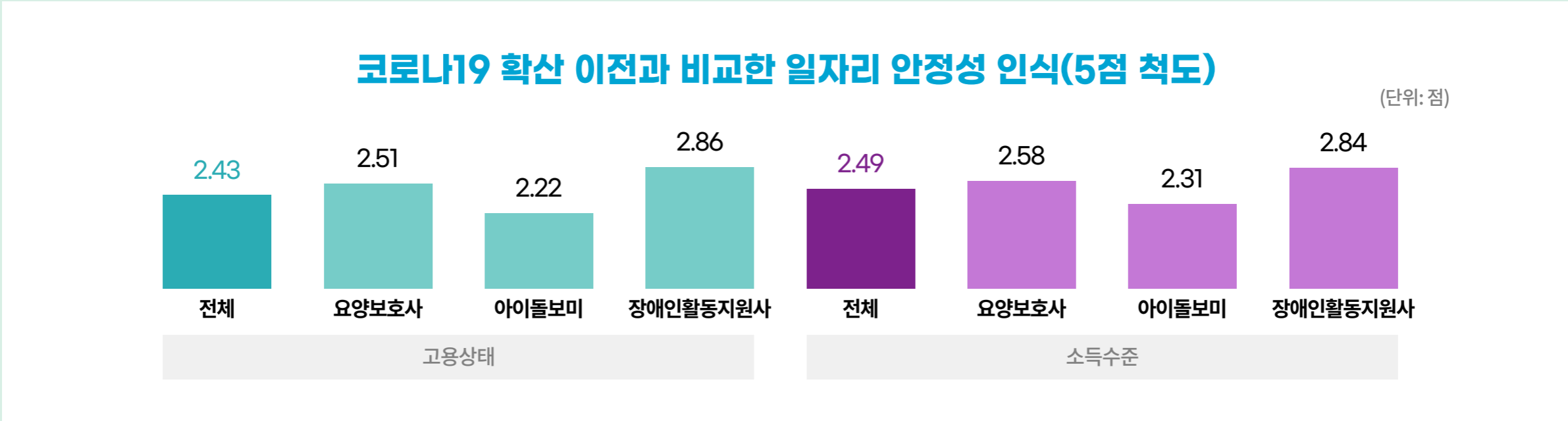
- 대면과 접촉이 필수적인 노동임에도 일하는 과정에 필요한 물품을 개인이 구입하는 경우 많아
- 마스크 등을 기관(센터)에서 제공받은 경우, 아이돌보미 91.2%로 가장 많아
- 요양보호사의 경우 협회나 지원센터 등을 통해 받는다는 응답 24.5%로 나타나



코로나19 이후의 일자리 안정성 인식 및 지원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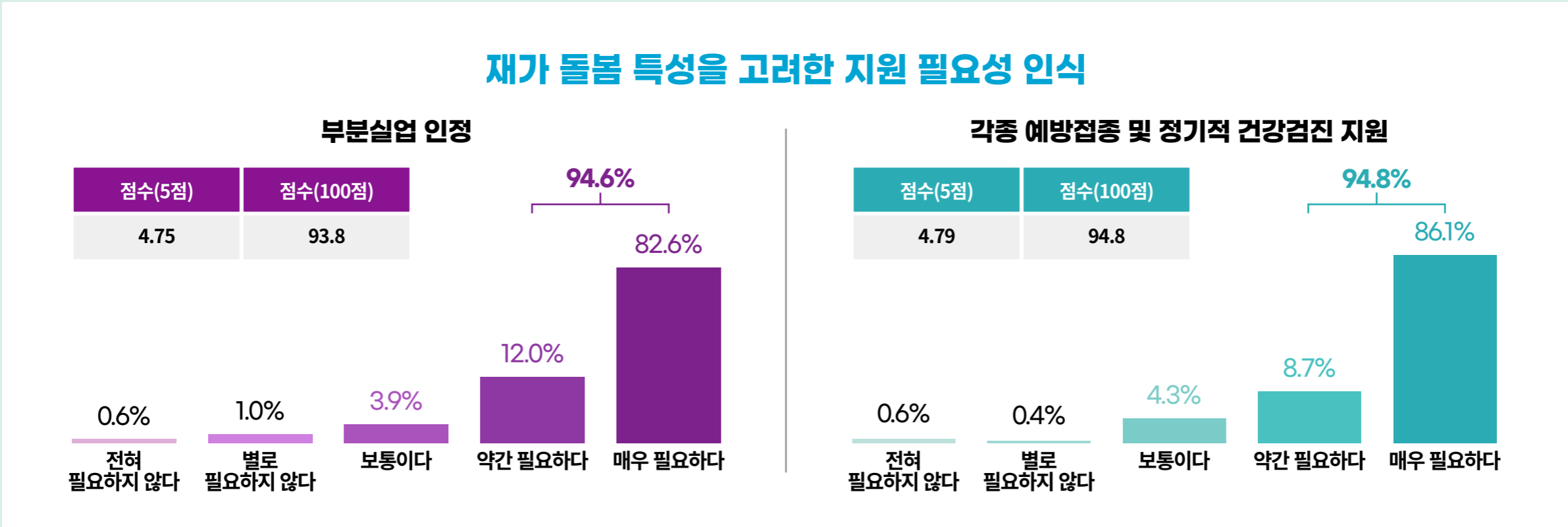
고용상태와 소득수준 안정성 인식, 아이돌보미 가장 낮아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한 고용상태 안정성 2.43점, 소득수준 안정성 2.49점에 그쳐
- 아이돌보미의 경우 고용상태와 소득수준 안정성 모두 평균 이하로 가장 낮아
-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안정성 인식, 다른 직종에 비해 높으나 중간 수준(3점)에 미치지 못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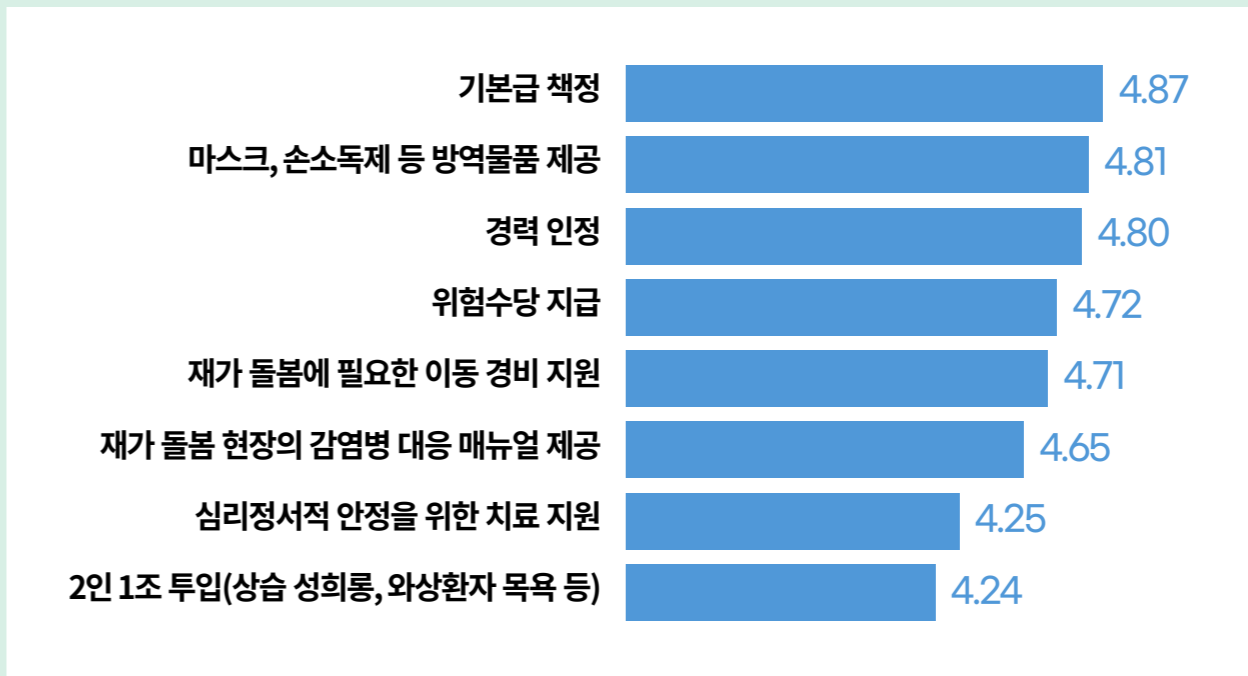
재가 돌봄 특성 반영한 부분실업 인정과 각종 예방접종 지원 필요해

- 일거리의 불안정성 고려해 '부분실업 인정' 필요하다는 응답 94.6%에 달해
- 대면노동 특성 고려해 '각종 예방접종과 정기적 건강검진 지원' 필요하다는 응답 94.8%에 달해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도 돌봄 노동 지속하기 위한 지원 요구 높아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시에도 돌봄 노동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급 책정', '방역물품 제공', '경력 인정', '위험수당 지급' 등 필요하다는 인식 높아 (5점 만점)



재가 돌봄 노동의 안전성과 안정성 보장을 위한 과제

일터와 관계의 안전성 제고

✓ 서비스 이용자의 취약성과 대면노동 특성 반영

- 각종 예방접종 우선대상 선정 및 정기 건강검진 지원 확대
- 재가 돌봄 현장의 감염 예방 필수 활동 수당 및 필수 물품 제공 (예: 마스크, 체온계, 위생장갑 등)
- 이용자(가족)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지자체와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 강화

✓ 감염병 확산 국면의 불안감 및 물리적·심리적 고립감 해소

- 재가 돌봄 현장 상황을 반영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 제공
- 재가 돌봄 노동자의 심리상담/치료 지원 확대
-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 상태와 질병 정보 고지 의무 강화

일자리의 안정성 증진

✓ 재가 돌봄 노동 현장의 비가시성 완화 및 제도화된 노동으로서의 공식성 강화

- 호출형 시급제 개선과 바우처 활용 범위 다양화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
- 이용자 요인에 의한 일거리 중단/감소에 대해 부분실업 인정 또는 사회보험 유지 지원
- 폐쇄적 상호의존성 완화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강화

✓ 대인서비스 노동 특성을 반영한 평가 강화 및 운영 체계 개선

- 돌봄 노동의 전문성 평가 체계 마련: 신체 돌봄의 기술, 유대관계 형성, 현장 대응력 등
- 경력직으로 구성된 (긴급) 돌봄 체계 구축
- 돌봄 노동자 양성 과정의 전문성 강화: 적정 인력 규모 및 서비스 역량 진단 등